

백 드래프트

김동일 이사 · 소방기술사

미국 유니버설 영화사가 제작한 「백 드래프트 (Back draft)」는 불(火災)을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분노의 역류」라는 제목으로 「의역(意譯)」되어 상영된 바 있다.

순직 소방관의 두 아들 또한 소방관이 되었는데, 형인 “스티븐”은 사명감 없는 동생이 마땅치 않고 동생 “브라이언”은 독불장군인 형을 싫어해서 사사건건 부딪힌다.

이 무렵 시카고에서, 백 드래프트라는 흔치 않은 화재폭발 현상으로 3명이 차례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화재조사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형에 대한 열등감을 견디지 못한 브라이언은 소방서를 나와 이 조사관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한 방화라는 사실을 알고 시의원인 “스 와이잭”을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범인이 이마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 전문 방화범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브라이언은 형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소방관 “에드콕스”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나 화학공장에 대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소방인력을 감축하려는 부정한 음모를 꾸며 결국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한 시의원과 그의 동업자들을 살려둘 수 없었다는 에드콕스의 고백을 듣고 갈등한다. 그 순간 건물이 무너지고, 불 속에 떨어진 에드콕스를 구하려다 스티븐도 같이 위험에 처한다. 에드콕스는 숨지고 스티븐은 동생에게 에드콕스가 범인임을 밝히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다. 화재조사관과 브라이언은 시의원 스 와이잭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브라이언은 다시 소방대에 복귀하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화학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

투하는 시카고 제17소방대 소속 두 형제 대원의 활약이라 할 수 있는데, 촬영 세트장의 직접 체험도 스틸 만점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명물로 자리 잡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이 영화사가 제작한 킹콩, 죠스, 주라기공원 등 명작 영화의 세트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오픈한 슈렉관의 4차원 입체영화는 스크린 속의 슈렉이 관객에게 물세레까지 퍼붓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1992년에 개장된 백 드래프트관은 위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대화재의 공포를 체험하는 세트로서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역시 영화에서의 화학공장 화재장면인데,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불길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천정과 바닥이 내려앉아 역시 실제상황처럼 놀라기도 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고도의 상업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놀이공원의 하나일 뿐이지만 이 시설의 일부인 백 드래프트 체험관에는 흥미진진한 즐거움과 함께 무서운 불의 세계, 그리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인간세계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教師)가 있다.

※백 드래프트 (Back Draft) : 백 드래프트는 열과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추가 공급될 때 발생하는 폭발적 연소현상이다. 흔히,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산소)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된 가연성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폭발을 동반한 화염이 실외로 분출(역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영화에서 베테랑 소방관 에드콕스는 이 현상을 방화 살인에 응용하였다.